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8 권 제 6 호, (2010. 12), pp.1274～1290

디자인 특성에 따른 니트 패션 트렌드의 주기 분석

고순영* · 박영선** · 박명자*,***†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한양대학교 수학과**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연구사업단***

Analysis of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and Cycles of Knit Fashion Trends

Soon Young Ko*, Young-Sun Park and Myung-Ja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Dept. of Mathmatics, Hanyang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Aging Society***
(2010. 10. 3. 접수일 : 2010. 11. 15. 수정완료일 : 2010. 12. 4. 게재확정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esign elements and fashion images of women's knitwear in collections of Paris, Milan, London and New York between 2003 and 2008, and examined knitwear trends in an effort to verify whether knitwear trends are repeated in certain cycles, whether they show complicated patterns in cycles and yet occur in quasi cycles, or whether they occur non-periodically in complicated forms of chaotic cycles. Trend cycle analysis results are deemed to identify the time series attribute of knit fashions. It also sought to categorize the attribute of various factors influencing knitwear trends with a view to determining relevancy between design element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predicting knitwear fashion trends and the progression of short-term knitwear trends. This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According to design elements or fashion images, knitwear fashion trends occur in cycles, quasi cycles, non-periodical cycles. These cyclic characteristics can be used as scientific data for planning knitwear products. The study confirmed close relevancy between fashion images and fashion elements. It identified close relevancy between designs with similar fashion elements and images through coordinates by year and season, and it is possible to make short-term prediction of trend direction through the flow of coordinates. Time series data were insufficient,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perfectly verify chaos indices and giving limitations to this study. A study with more time series data will produce a more effective method of predicting and using knitwear fashion trends.

Key words: knit fashion trend(니트 패션 트렌드), fashion cycle(패션 사이클), knitwear(니트웨어),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패션 디자인 특성), short-term prediction(단기 예측).

† 교신저자 E-mail : mjapark@hanyang.ac.kr

Ⅰ. 서 론

오늘날 패션 산업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지역차와 시계성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국적 글로벌 브랜드들의 패스트 패션의 활약으로 패션의 흐름은 더욱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상기온과 같은 계절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 정보 환경 변화와 패션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고 다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영리해진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한 검색 엔진과 추적서비스가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며 유행을 리드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변적인 패션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패션의 특성과 트렌드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패션 트렌드는 주기적인 가운데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 트렌드의 예측은 짧게는 6개월 전에서 1년 전부터 해당 계절의 예측과 함께 상품기획이 이루어지며, 미래의 구매력이 좋은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메가트렌드나 소비자의 소비 성향, 경쟁사 브랜드 분석, 전년도 판매실적 검토,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의 흐름 등을 분석하여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국내 패션 업체에서 제공 받는 트렌드 정보는 해외 제너럴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최신 트렌드 정보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국내 패션 산업의 특성에 따른 트렌드 정보의 누적된 변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1]. 또한, 정보에 빠르고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은 다양한 해외 트렌드를 빠르고 넓게 수용하면서 국내 기업에서 제시하는 트렌드보다 앞서는 멀티 트렌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패션 트렌드의 예측을 위해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트렌드 분석 시스템과 시계적으로 안정된 정보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하고 생산방식에서도 환경오염이 적은 니트 제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3]. 니트는 원사에서 바로 제품으로 이어지는 소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물로 만들어지는 제품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고 소재에 대한 개발과 염색, 디자인의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소재의 개발은 많은 공정과 긴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상품 기획 시 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상품의 매출과 연결되고, 기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상품 기획 시 정확한 트렌드의 예측과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니트 전문 제조업체들의 상품 기획 기간은 트렌드 분석에서 제조 및 출고까지의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촉박한 생산 스케줄로 인하여 제품의 경쟁력과 퀄리티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트렌드의 의미 자체가 경향, 움직임, 추세를 의미하며,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렌드를 예측하고 분석함에 있어 과거와 현재의 시계적인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트렌드를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많은 패션 기업에서 트렌드 기획 시 참고로 하는 해외 컬렉션의 니트 제품들을 디자인 특성에 따라 시계열의 주기성을 분석한다면 니트 제품 트렌드 기획 시 트렌드 예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니트웨어를 대상으로 니트의 디자인 요소와 패션 이미지를 분석자료로 하여 니트 트렌드의 흐름을 분석하고, 니트 트렌드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는지, 주기적 형태인지, 또는 주기 안에 복잡한 패턴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주기성을 갖는 준주기적 형태인지, 비주기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카오틱주기를 보이는지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주기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니트 패션 트렌드의 시

1) 고은주, 이지현, “최근 10년(1996~2005년) 간 국내 패션 트렌드의 경향 분석,” *복식* 58권 9호 (2008), p. 19.
2) 박윤아, “트렌드 변화에 따른 패션이미지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권 1호 (2008), p. 146.
3) 고순영, 박명자,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소재 구성 요소 및 트렌드 분석,” *한국니트디자인학회지* 7권 2호 (2009), p. 84.

계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 트렌드(Fashion Trend)와 패션 주기(Fashion Cycle)

트렌드(trend)는 경제 변동 중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장·정체·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패션 트렌드는 '패션의 경향'이란 의미로 패션의 움직임 즉, 패션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말한다[4]. 새로운 트렌드는 대개 고급문화(미술, 문학, 고전, 음악, 연극), 대중문화(TV, 대중음악, 영화, 연예인), 하위문화(비주류 계층)라는 세 종류의 문화권에서 발생하며, 이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다른 문화의 발전을 돕기도 한다[5]. 미래에 대한 탐구는 자신의 주변세계를 바꾸어 놓을지 모를 몇 가지 트렌드를 찾아내어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트렌드의 목적은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며, 트렌드는 예측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보기 쉽게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나 이러한 트렌드로부터 미래를 추론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트렌드는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에 걸쳐 어떤 변수를 관측한 결과를 숫자로 기록한 것을 시계열(time series)이라 한다. 시계열은 자연적 요인, 패션, 경제, 경영, 정치 및 사회적 영향들과 같은 여러 변화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시계열 변동요인은 추세 변동, 계절 변동, 주기 변동, 불규칙 변동으로 분류된다. 추세 변동은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친 변동으로 상승 추세와 하강 추세가 나타나고 직선이나 유연한 곡선 형태를 보이며, 계절 변동은 1년 미만의 주기적 변동으로 분기, 월등을 말하며, 주기 변동은 순환 변동이라고도 하며, 경기 동향, 실업률과 같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불규칙 변동은 추세 변동, 계절 변동, 주기 변동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시계열의 그 밖의 변동을 말한다[7].

새로운 스타일이 시장에 소개되고 소비자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수용을 하고 넓게 확산되어 절정에 이르다가 점점 하락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패션 주기(fashion cycle)이라 하며, 패션 주기는 클래식(classic), 패드(fad), 주기-재주기(cycle within cycle), 방해받는 주기(interrupted cycle), 순환 주기(recurring cycle)로 구분된다. 클래식은 긴 수용 주기를 갖는 스타일이고, 패드는 빠르게 상승하고 절정을 이루다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특징이나 패드로 시작하여 패션을 거쳐 클래식으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예전에 비해 점점 패션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8]. 주기-재주기는 클래식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패션 주기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색상, 소재, 실루엣과 같은 디자인 요소의 변화를 통해 주기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방해받는 주기는 패션이 덜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진행이 방해되어 패션이 중단되는 경우이고, 순환 주기는 사라진 패션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로 이는 과거의 패션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디자인 요소 중의 일부가 새롭게 추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복고 혹은 레트로라고 한다[9].

2. 패션 트렌드와 패션 주기의 선행 연구

패션 사이클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Belleau는 1860~1980년까지의 근대에서 현대 패션의 여성의 일상복 드레스(day dress)의 스커트 길이, 허리 강조, 실루엣, 소매, 바디스, 스커트의 맞음새를 연구하였는데, 이 시기에 허리의 강조나 스커트의 길

4) 안병기, *패션 트렌드정보기획론*, (서울: 경춘사, 2006), p. 154.
5) Sue Jenkyn Jones, 김혜경 역, *패션디자인*, (서울: 예경, 2004), pp. 24-25.
6) Eric Garland, 손민중 역, *미래를 읽는 기술*,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8), pp. 80-81.
7) 이승재, 백남철, 권희정, 최대순, 도명식, "불규칙변동 분해 시계열분석 기법을 사용한 AADT 추정," *대한교통학회지* 19권 6호 (2001), p. 67.
8) 이은영,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2007), pp. 276-279.
9) 안광호, 황선진, 정찬진, *패션마케팅*, (서울: 수학사, 2005), pp. 217-219.

이에서 주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실루엣은 박스형, 튜블러, 벨, 아우어글래스실루엣이 반복되었으며, 1935년 이후에는 1개 이상의 실루엣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10]. 이러한 연구는 시계열에 따른 유행의 주기성을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 향후 어느 정도의 주기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 국내의 패션 사이클에 관한 연구로 오현남(1992)은 1980～1989년까지의 실루엣과 아이템, 길이의 패션 사이클을 분석하였고, 이 기간 동안 패션의 주기성이 관찰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 사이클을 예측하였으며[11], 남재경(2001)은 1991～2000년까지의 패션의 테마 분석하였는데, 패션 주제는 크게 자연주의, 세계주의, 미래주의, 복고주의 등으로 분석되었고 각 테마들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주기성을 보인다고 하였다[12]. 유지헌(2004)은 1997년에서 2002년까지의 패션 테마를 분석하였는데, 패션의 메인 스트림(main stream)은 5년마다 주기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3]. 그러나 패션이 이보다 짧게 느껴지는 것은 메인 스트림 속에 2～3개의 서브 스트림(sub stream)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 하였고, 이 서브 스트림은 메인 스트림보다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패션은 여전히 주기를 이루며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선행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단편적인 패션의 주기성을 입증하였을 뿐 패션을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니트의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 · 외 패션 정보기관이나 패션 잡지, 해외 컬렉션지를 중심으로 패션의 테마, 패션 이미지,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기간의 주로 4년에서 5년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패션 트렌드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국내 여성복 브랜드에 반영되는 정도[14]나 패션 트렌드 및 패션 테마의 터닝 포인트 경향을 도출[15],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16～20]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지나간 니트 트렌드에 대한 분석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고, 소비자와 사회 전반적인 환경, 니트 디자인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고, 또한 미래의 트렌드 예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3. 패션 트렌드 예측(Fashion Trend Forecasting)

Miller는 패션의 이론을 바탕으로 추출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를 수학적 연구모델을 통하여 패션의 전망을 예측하였는데, 이 모델들은 패션 트렌드의 전체의 범위를 예측하기에는 불확정적이지

10) Bonnie D. Belleau, “Cyclical Fashion Movement: Women's Day Dresses: 1860～1980,”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2 (1987), pp. 15-20.
11) 오현남, 김문숙, “예측으로 본 1995년까지의 패션 경향: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을 중심으로,” *복식* 18호 (1992), pp. 321-337.
12) 남재경, 금기숙, “1990년대 패션 트렌드 분석연구: 여성패션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9호 (2001), pp. 1645-1654.
13) 유지헌, “패션 주기의 터닝 포인트 분석: Vougue 1997년과 2002년도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권 3호 (2004), pp. 327-338.
14) 이재진, “패션 트렌드 정보가 여성복 디자인 기획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44-51.
15) 유지헌, op. cit., pp. 327-338.
16) 조은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니트웨어의 조직 및 디자인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 214-220.
17) 이난영, 박혜원, “2000년 이후 패션에 활용된 니트 소재에 관한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권 1호 (2005), pp. 32-41.
18) 김혜영, 이신영, “해외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 아이템 경향 분석: 니트 아이템 분류목록의 제안과 실용화를 위한 탐색적 분석,” *복식문화연구* 14권 5호 (2006), pp. 813-827.
19) 양진숙, 정인희, “‘05～'07 F/W COLLECTION에 나타난 니트 패션 경향에 관한 연구: 파리, 밀라노, 서울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권 2호 (2006), pp. 221-231.
20) 김여원, “2007～2008 패션컬렉션에 표현된 저지소재의 트렌드 분석,” *생활과학연구논총* 11권 2호 (2007), pp. 175-182.

만, 이 모델을 통하여 사회 안에서의 특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정 패턴에 따라 역동적인 패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21]. 예측은 크게 소비자 리서치, 판매 예측, 칼라 예측, 텍스타일 예측으로 분류된다. 소비자 리서치는 실시간의 마케팅을 바탕으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소비자를 세분화하고, 상향 전파나 하향 전파로 인한 영향과 주기적인 유행 사이클과 레트로 패션, 시대정신과 메가트렌드의 반영을 참고로 소비자에 대한 리서치가 이루어진다. 칼라에 대한 예측은 소비자의 실태와 시대정신과 메가트렌드, 유행의 주기에 따른 상호 관계에 따라 예측이 이루어지며, 텍스타일 예측은 개발단계의 직물과 실행단계의 직물로 구분되어 예측을 한다. 다음으로 판매 예측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 시점에서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패션선도자나 메가트렌드, 문화의 흐름, 유행의 주기를 참고로 예측이 이루어진다. 결국 패션의 예측은 거시적으로는 시대정신과 메가트렌드, 문화의 흐름과 좌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예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패션 트렌드의 예측은 크게 장기적인 예측과 단기적인 예측으로 구분하는데, 장기적인 예측은 2년 이상 앞서서 예측이 시작되고, 경제, 라이프스타일 경향, 사회 전반적인 경향, 소비자 환경, 예술 경향 등 거시적인 차원의 메가트렌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기적인 예측은 계절 판매 2년 전에 예측이 시작되고, 구체적인 패션 제품을 기획하기 위한 제품의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패션의 단기 예측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칼라 트렌드로 계절 판매 2년 전에 시작되며, 칼라 예측이 끝나면 섬유회사에서는 섬유의 구조나 성분, 기능을 포함한 원사의 개발이 시작되고, 다음 단계로 원사회사에서는 원사의 형태나 색상, 원사를 이용한 조직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다음 단계는 직조나 니팅의 단계로 계절 판매 최소 6개월에서 16개월 전에 직물이나 니트의 조직이나 패턴, 프린트 등의 디자인을 개발한다. 계절 판매 3개월에서 8개월 전에는 어패럴 디자인과 제조가 시작되며, 이때 디자인의 컨셉과 실루엣, 디테일 등의 패션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리테일러는 계절 판매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구매할 제품을 스타일 테스팅을 통하여 판매를 예측한다[22]. 우리나라는 패션의 사이클은 외국과 유사하나, 김도연(200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패션 트렌드는 해외 패션 트렌드에 비해 6개월 정도 시계성(時計性)이 뒤쳐져 있으나, 소비자의 패션 수용도는 패션 브랜드보다 18개월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3].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패션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것을 보여주며 해외의 패션 트렌드와의 시계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의 상황에 맞는 패션 트렌드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Tyler (2006)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류회사의 직물과 원사에 관한 트렌드 분석은 직물전시회나 원사전시가 시작되는 1년 전의 시점과 동일하게 시작된다고 하였고, 전시회에서 새로운 직물이나 원사를 선보이는 업체의 트렌드 기획은 길게는 5년 전부터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게 되고, 적어도 2년 전에는 새로운 제품 착수에 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신제품들은 6～12개월 전부터 주문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였다[24].

니트는 원사에서 제품의 단계로 바로 이어지는 생산 사이클로 인하여 제품 디자인에 대한 패션의 예측 또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트렌드 사이클의 초기단계에 니트의 트렌드 분석과 상품 기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사에 대한 정보나 조직, 칼라, 아이템 등의 종합적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트렌드의 정보를 입수하여 상품 기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니트 업체들이 상품 기획

21) Christopher M. Miller, Shelby H. Mclntyre and Murali K. Mantrala, “Toward Formalizing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0 No. 2 (1993), pp. 154-155.

22) Evelyn L. Brannon, *Fashion Forecasting*,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2000), pp. 29-30.

23) 김도연, “패션 트렌드 정보의 소비자 수용: 1996년에서 2001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50.

24) David Tyler, “Supply Chain Influences on New Product Development in Fashion Clothing,”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Vol. 10 No. 3 (2006), pp. 320-321.

시 많이 참고로 하는 해외 유명 컬렉션에 발표되는 니트웨어를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 분석을 통해 시계열에 따른 6년간의 니트 트렌드의 분석을 통하여 니트웨어의 디자인 요소와 패션 이미지에 따른 주기성을 계절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1차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S(봄/여름)와 F/W(가을/겨울)의 4대 지역(밀라노, 런던, 파리, 런던)에 선보인 여성 니트웨어를 선별하였으며, 니트의 선별 범위는 니트로 분류되는 횡편, 환편, 경편, 크로셰, 핸드니트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이미지 자료를 다시 2차적으로 이미지 사진이 선명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삭제,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될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자료에 사용된 니트 이미지는 총 11,437개이고, 각 이미지는 연도, 계절, 장소와 패션 이미지, 그리고 디자인 요소 12개 항목을 분석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1) 니트 패션 트렌드 분석 항목 구성

니트 패션 트렌드의 분석을 위한 항목은 Davis (1996)의 디자인 요소의 분류와 이윤미(2008)의 니트 정장의 디자인 속성 추출 요소, 그리고 조은정(2006)이 연구한 니트웨어의 조직과 디자인분석에 사용된 요소를 참고로 하여 조사 항목을 추출하였다[25~27]. 본 연구를 위한 니트 패션 트렌드 분석 항목은 디자인 요소인 선, 색상, 소재에 따라 세부적

<표 1> 니트 패션 트렌드의 분석 항목

분석 항목	분석요소	
패션 이미지	Casual, sexy, modern, avant-garde, ethnic, sub culture, natural, elegance, classic, feminine	
선	실루엣	H, O, Y, A, X형
	여유분	피트(밀착형), 중간, 박스
	아이템	Pullover, pullover-half sleeve, coat, cardigan, sleeveless, twin-set, jacket, one-piece dress, blouse, shirts, cape, camisole, vest, skirt, pants, strapless, body suit, jump-suit, manteau, jumper, hood jumper, leggings, bolero, bustier, etc
소재	니트 조직	Plain, cable, lace, rib, wide rib, laddering, tuck, purl, aran, fisherman, textured, jacquard, intarsia, half cardigan, full cardigan, milano, racking, links & links, rahben, crochet, raschel, lace, net, blister, knit+woven, velour, wrap jq, stitch move, drop stitch, 3d, pintuck
	패턴 형태	Solid, flower, animal, geometric, abstract, conventional, stylized, mixed pattern, check, stripe, object, dot, figure, letters, character, landscape, etc
	패턴 배열	None, 단독, 풀 패턴, 가장자리, 혼합
	패턴 크기	None, 대, 중, 소, 혼합
	게이지	Low g (1.5～3g), middle g (7～10g), high g (12～18g), fine g (20g 이상)
	원사 종류	일반사, 장식사(clip), 장식사(fancy twist), 장식사(lurex), 장식사(melange), 장식사(space dyed), 장식사(tape), 일반사 +장식사
	편직 방법	Machine, hand knit
색	색상	Beige, yellow, cream, orange, brown, chocolate brown, sky blue, blue, navy, khaki, green, dark green, violet, wine, purple, light purple, pink, hot pink, red, white, black, light gray, melange gray, dark gray, metallic
	톤	Vivid, bright, strong, light, pale, dull, light grayish, grayish, deep, dark, dark grayish, soft

25)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 Hall(3rd Edition), 1996).
26) 이윤미, "품질기능전개(QFD) 이론을 적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속성: 중 · 노년층 여성 니트 정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58-66.
27) 조은정, op. cit., pp. pp. 46-50.

인 항목들을 구성하였고, 이밖에 패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패션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선에 관련된 항목은 아이템, 실루엣, 여유분을 포함하며, 색상에 관련된 항목은 색상, 톤이고, 소재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조직, 게이지, 원사, 편직 방법, 패턴의 형태, 패턴 크기, 패턴 배열을 분류하였다. 분석을 위한 정보 자료의 선정은 실제 디자인을 기획하는 디자이너와 MD 25명을 대상으로 니트 트렌드 분석 시 가장 많이 참고로 하는 정보 자료를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삼성 디자인넷과 퍼스트 뷰 코리아의 웹상의 콜렉션 자료를 분석의 도구로 선정하였다. 니트 패션 트렌드 분석의 기본적인 항목은 선, 색, 소재로 이루어지는 디자인 요소이고,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항목 구성과 세부적인 항목 구성은 〈표 1〉과 같다.

2) 통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분석은 추세 변동 분석(Fisher's Kappa, Bartlett's Kolmogorov-Smirnov test), 스펙트럴 분석(Spectral Analysis)이다.

(1) 추세 변동 분석**(Fisher's Kappa, Bartlett's Kolmogorov-Smirnov test)**

시계열(time series)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를 관측한 결과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계열 분석의 목적은 첫째, 시계열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주어진 자료를 발생시키는 확률적 체계를 이해하고 모형화하는데 있으며, 둘째,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보다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함이다. 즉, 어떤 시계열이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의 변동에 있어서 일정한 추세(trend)나 지속 양상을 나타낸다면, 미래에도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추세 변동이 일정 패턴(sinusoidal)을 갖는지 여부의 검정법은 백색잡음 속에 묻혀진 하나의 일정 패턴주성분을 탐색하는 기법인 Fisher's Kappa를 이용하였고, 백색잡음을 따르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즉, 계절 변동성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s Kolmogorov-Smirnov test를 사용하였다.

(2) 스펙트럴 분석**(Spectral Analysis)**

스펙트럴 분석은 양적인 예측 방법에 있어서 시계열 모형은 그 접근 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ARIMA 모형과 같은 시간영역(time domain) 분석 방법과 스펙트럴 분석과 같은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럴 분석을 이용하여 주요 니트 이미지와 관련 변수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주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스팩트럴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의 시계열에서 주기성을 파악함으로써, 계절에 따른 양상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미래의 경향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계열(혹은 잔차계열)에서 임의의 변동을 식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정상성(stationarity)을 갖는 시계열은 Sine 함수와 Cosine 함수로 이루어진 무수히 많은 주기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용하여, 시계열의 분산에 대한 각각의 주기함수의 영향력을 스펙트럴 밀도함수(spectral density function)로 나타냄으로써 영향력이 큰 주기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주어진 시계열 $\{y_1, y_2, \cdots, y_r\}$ 이 유한개의 주기함수와 오차항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는 전제 아래에서 다음이 성립한다.

$$y_t = f(t) + u_t$$

단, $f(t)$: 주기함수

$$E[u_t] = 0,\ E[u_t^2] = r^2,\ E[u_t u_s] = 0\ (s \neq t)$$

여기서 주어진 시계열의 분산은 오차항의 분산과 유한개의 주기함수의 합으로 나타내게 된다. 스펙트럴 분석은 주기함수의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스펙트럴 밀도함수(스펙트럼)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주기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Ⅳ. 연구 결과

1. 니트 트렌드 구성요소의 주기 분석

주파수(frequency) 대 파워스펙트럼(spectral density)에 대한 해석과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일정 주파수대에서 파워스펙트럼의 피크가 주기성을 나타내는데, 주파수 0.5 근처에서는 주기 6(또는 1), 주파수 1.0에서는 주기 6, 주파수 1.5에서는 주기 4, 주파수 2.0에서는 주기 3, 주파수 2.5와 3.0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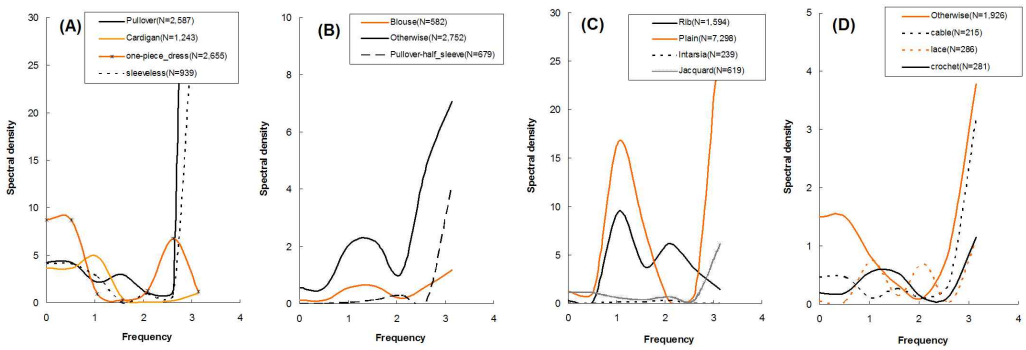
각각 주기 2.5와 2주기를 갖는다. 여기서 주기 6(또는 1)은 비패턴적인 패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특히, 주기가 2인 경우는 그 결과해석에서 주의를 요하는데, 3.0 근방이 아닌 다른 주파수영역에서의 파워스펙트럼의 피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그것은 계절(S/S, F/W)에 의한 효과일 수 있다. 물론 두 계절에 의한 주기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트렌드 예측에서 주기성은 계절에 의한 것보다 순수한 주기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이템에서는 〈그림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ullover(N=2,587)와 sleeveless(N=939)는 계절(S/S, F/W)에 의한 파워스펙트럼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2주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cardigan(N=1,243)은 주파수 1.0 근방에서 피크가 나타남으로서 6주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ne-piece dress(N=2,655)가 1 미만의 주파수에서 제 1 피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비패턴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blouse(N=582)는 파워스펙트럼이 피크 즉, 최대값이 1 미만으로서 패턴 성향이 높지 않았으며, 주기성 또한 발견할 수가 없었다. Pullover-half sleeve 등에서는 주파수 3.0 영역에서 미약한 스펙트럼의 증가가 있어 기본 2주기 즉, S/S 와 F/W 계절에 의한 주기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B)). 빈도가 높은 아이템일수록 주기 또는 준주기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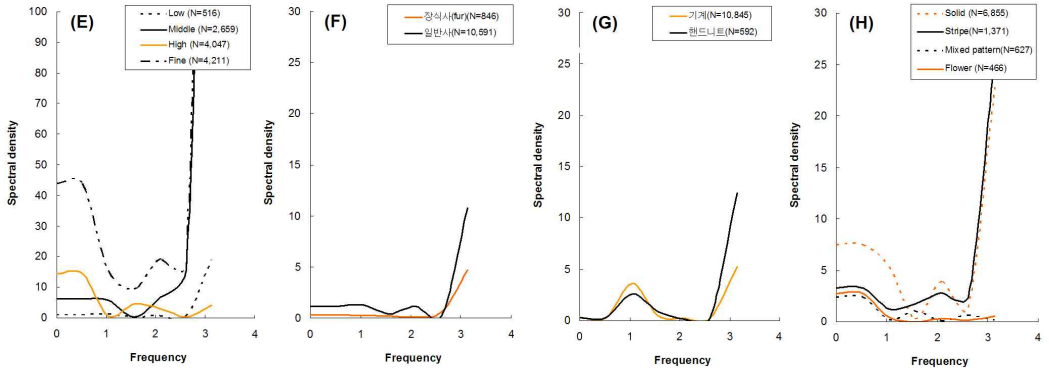
니트 조직에서는 〈그림 1(C)〉와 같이, 비패턴성은 매우 낮았고, plain(N=7,298)의 주기성은 계절에 의한 효과가 가장 컸으며, 실질적인 주기는 6주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rib(N=1,594)은 계절에 의한 주기 효과는 거의 없이 6주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ntarsia(N=239)와 jacquard(N=619)는 미미한 비패턴성과 더불어 스펙트럼에 의한 주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otherwise(N=1,926)에서는 비패턴성이 상대적으로 cable(N=215), lace (N=286), crochet (N=2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기성에서는 대부분 계절에 의한 파워스펙트럼 효과가 크게 나타나 2주기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미미하지만 lace는 3 또는 6주기성을 그리고 crochet은 4주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D)). 기본조직이며 활용도가 높은 조직과 패턴이나 색의 영향이 아닌 순수한 조직의 특성을 보이는 조직에서 주기 또는 준주기성을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게이지에서는 〈그림 2(F)〉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계절에 의한 파워스펙트럼 효과가 파인G(N=4,211), 미들G(N=2,659) 항목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파인G(N=4,211), 하이G(N=4,047)에서 비패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주기성에서는 파인G과 하이G에서는 각각 1주기(또는 6주기) 성향을 보였으며, 미들G(N=2,659)과 로우G(N=516)는 실질적인 계절에 의한 효과 외에 주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2(E)). 또한 원사에서는 장식사와 일반사 모두 계절에 의한 효과에 비해 높지 않은 스펙트럼을 보였다. 밀도가 높고 가는 하이나 파인 게이지에서 준주기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편직 방법에서는 〈그림 2(G)〉에서와 같이, 계절에



〈그림 1〉 연도에 따른 계절별 아이템(A, B)과 니트 조직(C, D)의 스펙트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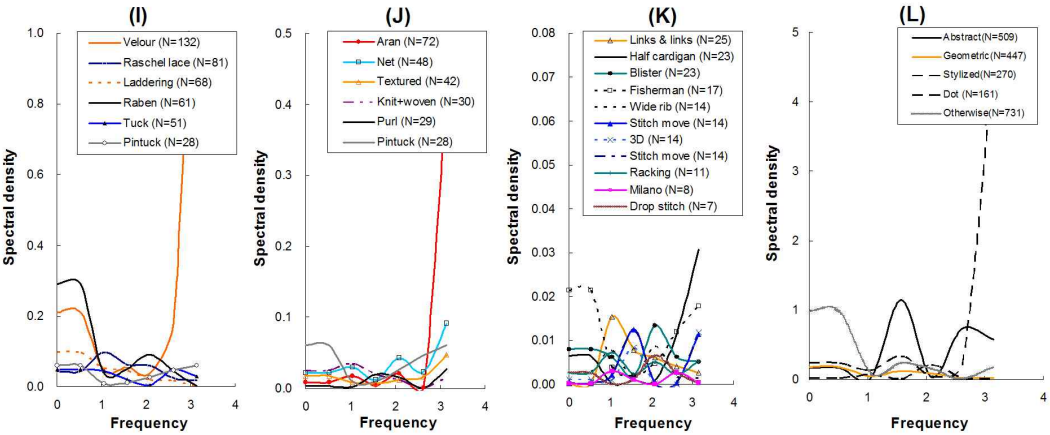
〈그림 2〉 연도에 따른 계절별 게이지(E), 원사 종류(F), 편직 방법(G) 및 패턴 형태(H)의 스펙트럴 분석.

의한 파워스펙트럼 효과가 컸으나, 기계(N=10,845)와 핸드니트(N=592)는 유사한 파워스펙트럼과 주기6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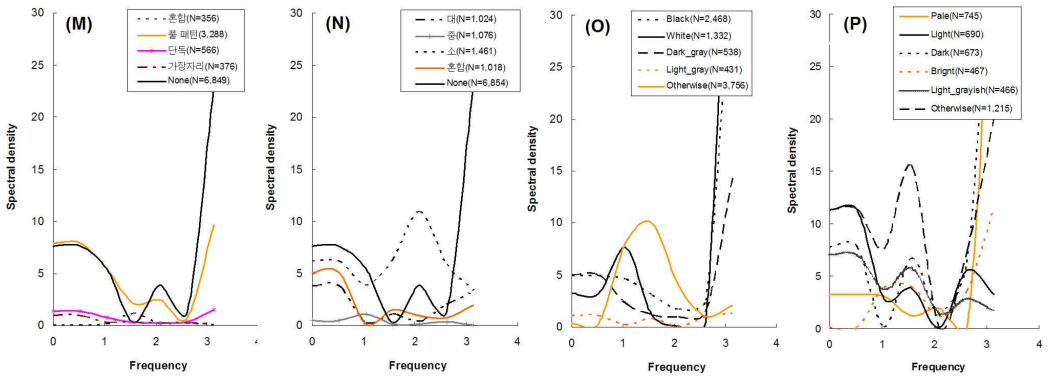
패턴 형태에서는 〈그림 2(H)〉에서와 같이, 계절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solid(N=6,855), stripe(N=1,371)이었고, 상대적으로 계절효과 즉, 2주기성은 flower (N=466), mixed pattern(N=627) 등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계절효과를 제외하면 solid, stripe 등에서 주기 1을 갖는 비패턴성을 보였으며, flower, mixed pattern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abstract, geometric, stylized, dot와 기타 패턴 형태는 비주기를 보이고 있다(그림 3(L)).

니트 조직에서 기타(otherwise, N=1,926) 항목을 세분화 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3(I)〉에서부터 〈그림 3(K)〉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계절에 의한 파워스펙트럼 효과가 강한 것은 velour(N=132), aran(N=72), half cardigan(N=23) 등이었고, 대부분에서 비패턴적 패턴 성향을 보이는 스펙트럼의 피크가 1 미만으로 낮았지만, 그 중에서 velour(N=132), raschel lace (N=81), laddering(N=68) 등의 순으로 비패턴적인 주기성을 다소 약하게 가지고 있었다.

패턴 배열은 〈그림 4(M)〉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풀패턴(N=3,288), None(N=6,849), 단독(N=566) 등에서 다른 주파수에서보다 3.0 근방에서 높은 파워스펙트럼이 나타나 계절에 의한 주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효과에서는 풀 패턴, None 등에서 1 미만의 주기성(즉, 준주기성)이 발견되었고, 단독, 가장자리(N=376) 그리고 혼합(N=356) 등



〈그림 3〉 연도에 따른 계절별 니트 조직(기타, I~K)과 패턴 형태(L)의 스펙트럴 분석.



〈그림 4〉 연도에 따른 계절별 패턴 배열(M), 패턴 크기(N), 색상(O) 및 톤(P)의 스펙트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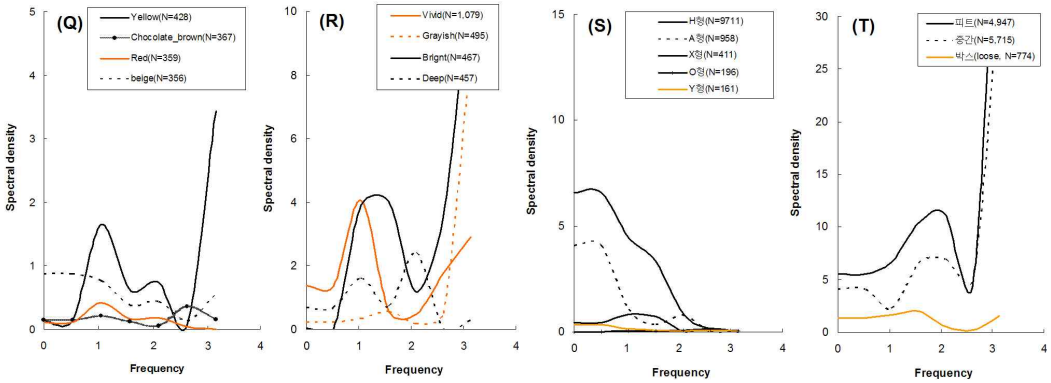
에서는 뚜렷한 순수 주기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패턴 크기에서는 None(N=6,854)에서 확연한 계절효과 주기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추세경향에 자체 내에서는 None, 혼합(N=1,018), 대(N=1,024) 등에서 1 미만의 주파수 영역에서 파워스펙트럼의 피크가 발견되었다. 또한 소(N=1,461)의 경우에는 3-주기성분에서 피크를 보였다. 즉, 제 1차 피크는 소의 패턴 크기에서만 뚜렷한 형태를 보였으며, 중(N=1,076)은 상대적으로 낮은 스펙트럼을 나타냄으로써 주기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N)). 패턴에 관련된 항목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주기성을 보이나 패턴이 크고 풀패턴의 배열에 혼합의 형태는 준주기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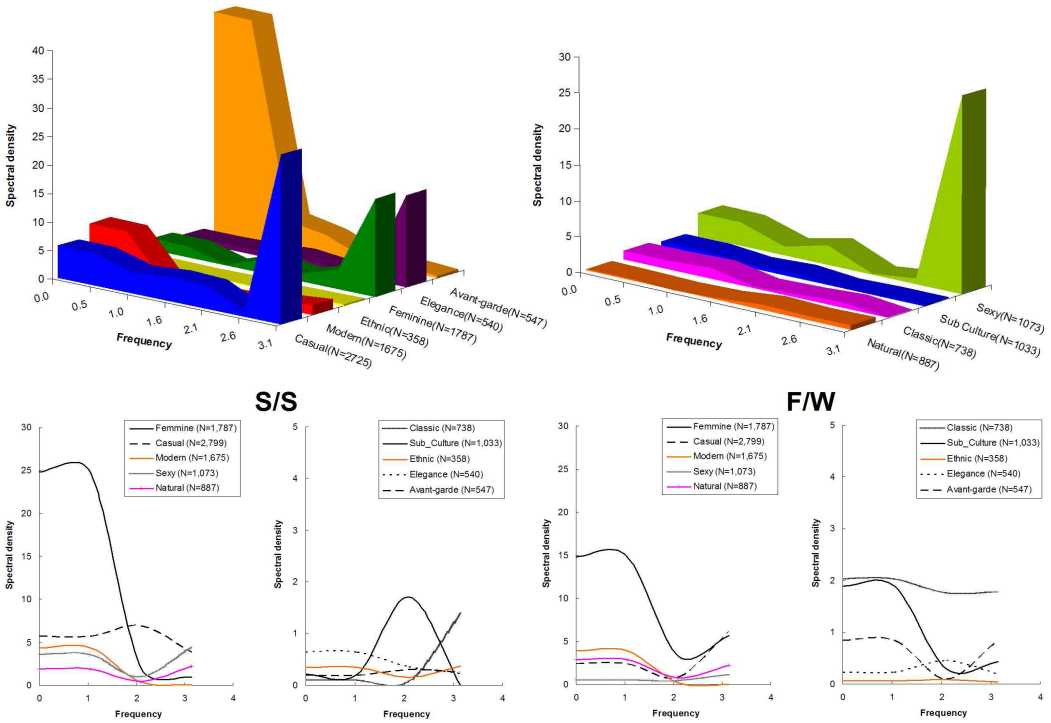
연도에 따른 색상, 톤에 대한 스펙트럴 분석 결과는 〈그림 4(O)〉, 〈그림 4(P)〉와 같다. 색상에서 계절에 의한 주기성은 white(N=1,332), black(N=2,468) 등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자체 내의 뚜렷한 순수 주기성은 otherwise(N=3,756)가 4-주기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계절 효과를 제외하면 white가 미미하지만 6주기성을 가지며 Black, dark_gray(N=538)가 비패턴적인 1-주기(또는 6-주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light_gray(N=431)는 주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톤의 경우에는, otherwise(N=1,215), pale(N=745), dark(N=673) 등에서 계절에 의한 2-주기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계절 효과를 제외한 주기성의 비패턴적 성향은 light(N=690), otherwise, dark, light_gray 등의 순이었다. 색상이나 톤은 무채색 계열의 색상에 빈도가 높은 색상들과 라이트나 다크톤에서 준주기성을 보인다.

기타 색상에서는 〈그림 5(Q)〉와 〈그림 5(R)〉에서와 같이, yellow(N=428)가 계절에 의한 2-주기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6-주기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타의 톤에서는 bright(N=467)와 Grayish(N=495)가 계절에 의한 2-주기 패턴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bright는 동시에 4-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은 〈그림 5(S)〉에서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계절에 의한 2-주기가 없이 순수하게 H형, A형 등에서 비패턴적인 형태인 준주기 성향을 띄었으며 이에 반하여 X형은 약한 4-주기성향을 O형과 Y형은 뚜렷한 주기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유분 항목에서는 〈그림 5(T)〉와 같이, 피트(N=4,947)와 중간(N=5,715)에서 강한 계절효과에 의한 2-주기성이 나타났으며, 박스(N=774) 등은 비주기적인 패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에 따른 계절별 패션 이미지의 스펙트럴 분석 결과는 〈그림 6 Top〉에서와 같다. 계절에 의한 2-주기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이미지는 캐주얼(N=2,725), 섹시(N=1,073), 패미닌(N=1,787), 엘레강스(N=54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방가르드(N=547)에서는 강한 준주기적성향을 모던과 캐주얼, 그리고 섹시 등에서는 다소간 준주기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패미닌, 서브컬처(N=1,033), 내추럴(N=887), 클래식 등은 비주기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연도에 따른 계절별 이미지의 계절 효과를 제거한 스펙트럴 분석 결과는 〈그림 6 Bottom〉에서와 같다. S/S 계절에서



〈그림 5〉 연도에 따른 계절별 색상(기타, Q), 톤(기타, R), 실루엣(S) 및 여유분(T)의 스펙트럴 분석.



〈그림 6〉 연도에 따른 계절별 이미지의 스펙트럴 분석.

패미닌은 비패턴적인 준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주얼과 서브컬쳐에서는 약한 3-주기성을 보였다. 또한 F/W에서는 패미닌과 서브컬쳐에서 준주기적 패턴성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캐주얼, 모던, 페미닌, 섹시와 같이 빈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이미지에서 준주기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기한 연도에 따른 계절별 각 변수의 트렌드 분석 즉, 주어진 시계열이 일정 패턴(sinusoidal pattern)의 추세 변동성을 갖는지 여부와 백색잡음(white noise)을 따르는지를 검정한 결과, 그리고 이차적으로 스펙트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주기와 준주기

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4〉에서와 같다. 여기서 시계열에서 추세 변동이 일정 패턴(sinusoidal)을 갖는지 여부의 검정법인 Fisher's Kappa는 F_K로 표기하였고, 백색잡음을 따르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즉, 계절 변동성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s Kolmogorov-Smirnov test의 통계량은 BKS로 표기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템에서는 pullover가 추세 및 계절 변동을 가지고 준주기성을 보이고 있고, cardigan은 계절 변동과 주기성을 보이며, one-piece_dress는 추세 변동과 계절 변동은 없었으나 준주기성을 보였다. 주로 활용 빈도가 높은 아이템들에서 주기, 준주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pullover의 경우 준주기성을 보이나, 추세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도에 따라 트렌드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직에서는 rib과 plain에서 강한

〈표 2〉 니트웨어 디자인 요소(아이템, 조직, 게이지, 원사 종류, 편직 방법)의 트렌드 변동과 스펙트럴 분석 I

	요소	트렌드 추세 변동		스펙트럼
		F_K	BKS	
아이템	Pullover(N=2,587)	3.55*	0.63*	준주기(T=6 or $2^{\dagger}$)
	Pullover-half_sleeve(N=679)	NS	NS	비주기
	Cardigan(N=1,243)	NS	0.67*	주기(T=6)
	Sleeveless(N=939)	NS	NS	비주기(T=$2^{\dagger}$)
	One-piece_dress(N=2,655)	NS	NS	준주기(T=6)
	Blouse(N=582)	NS	NS	비주기
	Otherwise(N=2,752)	NS	NS	비주기
니트 조직	Plain(N=7,298)	3.47*	NS	준주기(T=6 or $2^{\dagger}$)
	Cable(N=275)	NS	NS	비주기
	Lace(N=286)	NS	NS	주기(T=3 or $2^{\dagger}$)
	Rib(N=1,594)	3.80*	NS	주기(T=6)
	Jacquard(N=619)	NS	NS	비주기
	Intarsia(N=239)	NS	NS	비주기
	Crochet(N=281)	NS	NS	주기(T=4 or $2^{\dagger}$)
	Otherwise(N=845)	NS	NS	준주기
게이지	Low(N=516)	NS	NS	비주기(T=$2^{\dagger}$)
	Middle(N=2,659)	NS	NS	비주기(T=$2^{\dagger}$)
	High(N=4,047)	3.48*	0.64*	준주기(T=6 or $2^{\dagger}$)
	Fine(N=4,211)	NS	NS	준주기(T=6 or $2^{\dagger}$)
원사 종류	일반사(N=10,591)	NS	NS	비주기(T=$2^{\dagger}$)
	장식사(N=1,449)	NS	NS	비주기(T=$2^{\dagger}$)
편직 방법	기계(N=10,845)	NS	NS	준주기(T=6 or $2^{\dagger}$)
	핸드니트(N=592)	NS	NS	준주기(T=6 or $2^{\dagger}$)

F_K: Fisher's Kappa, BKS: Bartlett's Kolmogorov-Smirnov, NS: not significant level alpha=0.05.

†: 계절 S/S 와 F/W에 의한 2-주기패턴.

* 조직, 게이지, 원사, 편직 방법의 F_K: Fisher's Kappa, BKS: Bartlett's Kolmogorov-Smirnov 분석은 고순영, 박명자(2009)[28]의 선행 분석을 참조.

28) 고순영, 박명자, op. cit., pp. 89-91.

추세 변동이 존재하고, 주기적 패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직들로 두 조직 모두 준주기와 주기를 나타내고 있으나, 계절에 의한 변동보다는 연도에 따라 트렌드의 변화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하이게이지에서는 추세 변동과 계절 변동을 가지면서 동시에 준주기적 비패턴과 만나서 서로 상쇄현상을 보이고 있다. 편직 방법에서는 기계와 핸드니트 모두에서 추세 및 계절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준기적 비패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턴 형태에서 solid와 stripe에서 준주기가 나타났고, 그 외의 조직에서는 주기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flower는 비주기를 보이지만 추세 변동 및 계절 변동이 크므로 트렌드 예측 시 추세 변동을 참고할 수 있겠다. 패턴 배열과 패턴 크기는 모든 요소에서 추세 변동과 계절

〈표 3〉 니트웨어디자인 요소(패턴 형태, 배열, 크기, 색상, 톤)의 트렌드 변동과 스펙트럴 분석 II

	요소	트렌드 추세 변동		스펙트럼
		F_K	BKS	
패턴 형태	Solid (N=6,855)	NS	NS	준주기(T=6 or 2^+)
	Flower (N=466)	3.77*	0.75**	비주기
	Geometric(N=447)	NS	NS	비주기
	Abstract(N=509)	NS	NS	비주기
	Stylized(N=270)	NS	NS	비주기
	Stripe(N=1,371)	NS	NS	준주기(T=6 or 2^+)
	Dot (N=161)	NS	NS	비주기
	Mixed pattern(N=627)	NS	NS	비주기
	Otherwise(N=731)	NS	0.67*	비주기
패턴 배열	단독(N=566)	NS	NS	비주기(T=2^+)
	풀 패턴(N=3,288)	NS	NS	준주기(T=6 or 2^+)
	가장자리(N=376)	NS	NS	비주기
	혼합(N=356)	NS	NS	비주기
	None(N=6,849)	NS	NS	준주기(T=6 or 2^+)
패턴 크기	대(N=1,024)	NS	NS	준주기(T=6)
	중(N=1,076)	NS	NS	비주기
	소(N=1,461)	NS	NS	주기(T=3)
	혼합(N=1,018)	NS	NS	준주기(T=6)
	None(N=6,854)	NS	0.62*	준주기(T=6 or 2^+)
색상	Beige(N=356)	NS	NS	비주기
	Yellow(N=428)	NS	NS	비주기
	Chocolate brown(N=367)	NS	NS	비주기
	Red(N=359)	NS	NS	비주기
	White(N=1,332)	NS	0.62*	준주기(T=6 or 2^+)
	Black(N=2,468)	NS	NS	준주기(T=6 or 2^+)
	Light gray(N=431)	NS	NS	비주기
	Dark gray(N=538)	NS	NS	준주기(T=6)
	Otherwise(N=3,736)	NS	NS	주기(T=4)

〈표 3〉 계속

	요소	트렌드 추세 변동		스펙트럼
		FK	BKS	
톤	Vivid(N=1,079)	NS	NS	비주기
	Brignt(N=467)	NS	NS	비주기
	Light(N=690)	NS	NS	준주기(T=6)
	Pale(N=745)	NS	NS	비주기(T=2†)
	Light grayish(N=466)	NS	NS	준주기(T=6)
	Grayish(N=495)	NS	NS	비주기
	Deep(N=457)	NS	NS	비주기
	Dark(N=673)	NS	NS	준주기(T=6 or 2†)
	Otherwise(N=1,215)	NS	NS	준주기(T=6 or 2†)

FK: Fisher's Kappa, BKS: Bartlett's Kolmogorov-Smirnov, NS: not significant level alpha=0.05

† : 계절 S/S 와 F/W에 의한 2-주기패턴.

* 패턴 형태, 패턴 배열, 패턴 크기의 FK: Fisher's Kappa, BKS: Bartlett's Kolmogorov-Smirnov 분석은 고순영, 박명자 (2009)[29]의 선행분석을 참조.

변동은 없고, 다만 풀패턴과 none에서 그리고 패턴 크기에서는 중만 비주기를 보이고 나머지 요소는 준주기와 주기를 보이고 있다. 색상에서는 white와 black 그리고 dark gray와 otherwise에서 준주기 또는 주기를 보였으며, white만이 계절 변동을 보이고 다른 요소에서는 계절 변동과 추세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톤에서는 light, light grayish, dark에서 준주기가 나타나고, 역시 계절과 추세에 의한 변동은 없다. 색상과 톤은 계절과 추세에 의한 영향이 적으므로 트렌드 예측 시 순수한 주기성을 참고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루엣은 H형 실루엣에서 강한 추세 변동과 함께 준주기를 보였고, A형의 실루엣은 계절 변동의 영향과 준주기를 나타냈다. 여유분은 피트와 중간이 계절 변동에 영향을 받으나 주기성은 보이지 않았다. 패션 이미지는 모던과 패미닌 이미지에서 계절 변동과 추세 변동이 나타났고 준주기를 보였다. 역시 활용 빈도가 높은 패션 이미지들로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본 속성은 유지하되 변형된 형태로 주기성을 보이는 요소들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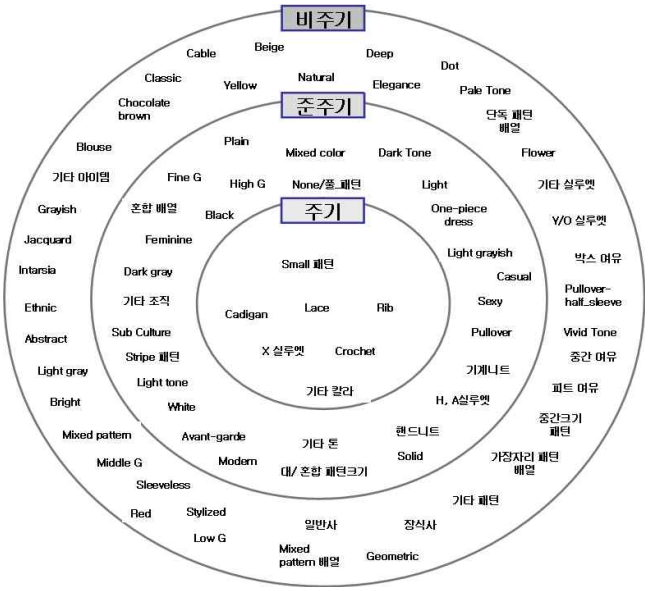
〈그림 7〉에서와 같이, 주기 성향을 보이는 그룹은 니트 조직 요소에서 많이 나타났고, 이 그룹의 요소들은 cardigan이나 rib 조직처럼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특징을 보이거나 높은 빈도 분포를 보이는 그룹이거나, 반대로 낮은 분포와 디자인 속성이 강해 유행적 요소를 지니는 그룹으로 상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주기성을 보이는 관점이 다른데, 하나는 주기적이면서 클래식을 이용한 트렌드의 전환을 보이는 그룹과 다른 하나는 디자인적인 특성이 강하여 잦은 출현보다는 주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패드(fad)를 형성하는 그룹들로 단기적인 유행을 형성하다가 쇠퇴하는 속성을 보이는 그룹들로 보여진다. 반면, 준주기를 보이는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빈도 분포가 높고 유행을 주도하는 그룹으로 이 그룹의 요소들은 디자인 요소의 클래식한 속성은 유지하면서 트렌드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 다채로운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이 그룹들은 디자인의 속성 자체는 유지하면서 트렌드의 흐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룹으로 주기 안에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주기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트렌드를 형성하는 그룹들로 사료된다. 비주기

29) 고순영, 박명자, op. cit., pp. 91-93.

〈표 4〉 나트웨어 디자인 요소(색상, 톤, 실루엣, 여유분)와 패션 이미지의 트렌드 추세 변동과 스펙트럴 분석 Ⅲ

	요소	트렌드 추세 변동		스펙트럼
		Fκ	BKS	
실루엣	H형(N=9,711)	6.15**	NS	준주기(T=6)
	X형(N=411)	NS	NS	주기(T=4)
	Y형(N=161)	NS	NS	비주기
	O형(N=196)	NS	NS	비주기
	A형(N=958)	NS	0.65*	준주기(T=6)
여유분	피트(N=4,947)	NS	0.65*	비주기(T=$2^{\dagger}$)
	중간(N=5,715)	NS	0.61*	비주기(T=$2^{\dagger}$)
	박스(N=774)	NS	NS	비주기
이미지	Casual(N=2,799)	NS	NS	준주기(T=6 or $2^{\dagger}$)
	Modern(N=1,675)	4.01**	0.80**	준주기(T=6)
	Ethnic(N=358)	NS	NS	비주기
	Natural(N=887)	NS	NS	비주기
	Classic(N=738)	NS	NS	비주기
	Feminine(N=1,787)	4.40**	0.80**	준주기(T=6 or $2^{\dagger}$)
	Elegance(N=540)	NS	NS	비주기(T=$2^{\dagger}$)
	Sub Culture(N=1,033)	NS	NS	준주기(T=6)
	Avant-garde(N=547)	NS	NS	준주기(T=6)
	Sexy(N=1,073)	NS	NS	준주기(T=6 or $2^{\dagger}$)

Fκ: Fisher's Kappa, BKS: Bartlett's Kolmogorov-Smirnov, NS: not significant level alpha=0.05.
†: 계절 S/S와 F/W에 의한 2-주기 패턴.



〈그림 7〉 니트웨어의 디자인 요소와 패션 이미지의 주기성.

의 그룹은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며, 그룹 내의 요소들도 서로 상반된 디자인 특성을 보이고 장식적이며 가시성이 큰 디자인적 특성을 보여 변화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유행 심리를 충족시키는 요소들의 그룹으로 보여진다. 비주기의 요소들은 주기를 보이지는 않지만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메인 트렌드를 보조하는 역할들의 그룹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의류 상품 기획 시 다가올 계절의 트렌드 예측은 매출과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는 곧 마케팅의 핵심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소재의 활용도가 크고 편안하며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효율적인 니트 제품은 소재에서 바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기획시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의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 니트웨어를 대상으로 니트의 디자인 요소와 패션 이미지의 자료 분석을 통해 주기를 분석하고, 니트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계열에 따른 6년간의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니트웨어의 디자인 요소와 패션 이미지가 일정한 주기를 갖는 주기적 형태인지, 또는 주기 안에 복잡한 패턴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주기성을 갖는 준주기적 형태인지, 비주기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카오틱주기를 보이는지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특성에 따른 니트 패션 트렌드의 주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니트 패션 트렌드에는 디자인 요소나 패션 이미지에 따라 주기, 준주기, 비주기의 다양한 주기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기성은 유사한 속성끼리 묶인다. 즉, 무늬가 없거나 무채색이고 작은 패턴 배열일수록 유사하며 또는, 무늬가 크고 풀패턴이며, 혼합 형태처럼 가시성이 큰 속성일수록 유사한 속성과 주기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기는 진화한다. 준주기는 주기를 바탕으로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며 진화한다. 넷째, 주기는 복합성을 내재한다. 주기는 단일적인 영향에 의해서보다는 디자인 요소 간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 다섯째, 빈도가 높거나 기본적이고 순수한 속성을 가질수록 보다 주기가 안정적이다. 여섯째, 니트의 디자인 요소와 패션 이미지의 주기 유형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주기 성향을 보이는 그룹은 조직요소에서 많이 나타났고, 이 그룹의 요소들은 cardigan이나 rib 조직처럼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특징을 보이거나 높은 빈도 분포를 보이는 그룹이거나 반대로 낮은 분포와 디자인 속성이 강해 패드의 요소를 지니는 그룹으로 상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준주기를 보이는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빈도 분포가 높고 유행을 주도하는 그룹으로 이 그룹의 요소들은 디자인 요소의 클래식한 속성은 유지하면서 트렌드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 다채로운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비주기의 그룹은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며, 그룹 내의 요소들도 서로 상반된 디자인 특성을 보이고 장식적이며 가시성이 큰 디자인적 특성을 보여 변화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유행 심리를 충족시키는 그룹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니트 패션 트렌드를 시계열에 따라 주기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학문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니트웨어를 기획할 때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시계열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인 주기성을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검증에는 무리가 있었으리라 사료되며, 미래에는 보다 많은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트렌드의 주기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제 패션 현장에서 트렌드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고순영, 박명자 (2009).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소재 구성 요소 및 트렌드 분석.” *한국니트디자인학회지* 7권 2호.

고은주, 이지현 (2008). “최근 10년(1996~2005년)간 국내 패션 트렌드의 경향 분석.” *복식* 58권

9호.
김도연 (2001). “패션 트렌드 정보의 소비자 수용: 1996년에서 2001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여원 (2007). “2007～2008 패션컬렉션에 표현된 저지소재의 트렌드 분석.” *생활과학연구논총* 11권 2호.
김혜영, 이신영 (2006). “해외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 아이템 경향 분석: 니트 아이템 분류 목록의 제안과 실용화를 위한 탐색적 분석.” *복식문화연구* 14권 5호.
남재경, 금기숙 (2001). “1990년대 패션 트렌드 분석연구: 여성패션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9호.
박윤아 (2008). “트렌드 변화에 따른 패션 이미지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권 1호.
안광호, 황선진, 정찬진 (2005). *패션마케팅*. 서울: 수학사.
안병기 (2006). *패션 트렌드정보기획론*. 서울: 경춘사.
양진숙, 정인희 (2006). “'05～'07 F/W Collection에 나타난 니트 패션 경향에 관한 연구: 파리, 밀라노, 서울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권 2호.
오현남, 김문숙 (1992). “예측으로 본 1995년까지의 패션 경향: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을 중심으로.” *복식* 18호.
유지헌 (2004). “패션 주기의 터닝 포인트 분석: Vougue 1997년과 2002년도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권 3호.
이난영, 박혜원 (2005). “2000년 이후 패션에 활용된 니트 소재에 관한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권 1호.
이승재, 백남철, 권희정, 최대순, 도명식 (2001). “불규칙 변동 분해 시계열분석 기법을 사용한 AADT 추정.” *대한교통학회지* 19권 6호.
이윤미 (2008). “품질기능전개(QFD) 이론을 적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속성: 중·노년층 여성 니트 정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영 (2005).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이재진 (2001). “패션 트렌드 정보가 여성복 디자인 기획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정 (2007).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니트웨어의 조직 및 디자인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elleau, Bonnie D. (1987). “Cyclical Fashion Movement: Women's Day Dresses: 1860～1980.”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 No. 2.
Brannon, Evelyn L. (2000). *Fashion Forecasting*.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Davis, Marian L. (1996).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 Hall (3rd Edition).
Garland, Eric (2008). *미래를 읽는 기술*. 손민중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Miller, Christopher M., Shelby H. Mclntyre and Murali K. Mantrala (1993). “Toward Formalizing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0, No. 2.
Tyler, David (2006). “Supply Chain Influences on New Product Development in Fashion Clothing.”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Vol. 10, No. 3.
http://www.samsungdesign.net
http://firstviewkorea.com